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강 유 진* · 문 재 우**

초 록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가족관련요인의 효과에 초점을 둔 것이다. 학교적응을 학교생활태도, 성적, 학교만족도 등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하위영역에 미치는 가족관련요인들의 효과가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서울시 중·고등학교 남녀 271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첫째, 학교적응의 각 하위 영역별로 가족관련요인의 효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 학교적응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족배경요인보다 가족관계요인의 효과가 더욱 컸으며, 이 중에서도 부모관심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가족배경요인으로서 경제상태의 영향은 성적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관심을 촉진할 수 있는 부모가이드라인의 제시와 더불어, 계층간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주제어 : 청소년기 학교적응, 가족배경, 가족관계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 한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I. 문제제기

아동과 성인에 비해 청소년기는 학교의 중요성이 가장 극대화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청소년기 학교적응이 중요한 점으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을 들 수 있겠다. 첫째, 양적 측면에서 볼 때 청소년들은 하루의 대다수의 시간을 학교생활 및 학업활동에 쏟는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감소하는 대신 교사 및 친구와의 상호작용이 급격히 증가한다. 청소년들은 교사 및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 가족에서 벗어나 사회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배우며, 자연스럽게 학교는 청소년들의 사회화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둘째, 학교에서 성인기에 필요한 역할과 지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 학교생활의 경험은 매우 중요하다. 현대 산업사회는 사회구성원들에게 고도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은 성공적 성인기 적응을 위해 학교에서 각 연령 수준에 맞는 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궁극적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만들어가야 한다(장휘숙 저, 2000: 317).

최근 우리 사회에서 학교폭력, ‘왕따’ 문제 등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 문제가 비단 개인과 가족 차원의 관심 범위를 넘어서 사회적 차원의 관심사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외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관한 국내의 문헌들은 주로 어떠한 요인이 청소년들의 학교적응 혹은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본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 연구들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성별, 연령 등 개인 특성 요인 및 자아존중감, 우울 등 개인의 심리학적 요인의 영향력을 규명

하거나(김광수, 2003; 양순미, 유영주, 2003; 이옥주, 2003; 현희순, 김양순, 1999), 가족, 친구, 학교 등 청소년이 상호작용 하는 사회적 관계의 특성에 따라 학교적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는 방향(김영희, 2002; 민하영, 권기남, 2004; 백경숙, 권용신, 2004; 신나나, 도현심, 2000; 양국선, 장성숙, 2001; 오재연, 최정혜, 김행자, 2003; 이정윤, 이경아, 2004; 이진숙, 정혜정, 2004; 정규석, 2004; 최지은, 신용주, 2003)으로 전개되어 왔다.

특히, 이러한 관련 요인들 중 가족과의 상호작용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에 매우 핵심적인 것으로 지적된다.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부모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화 요인으로서, 청소년의 행동과 사고방식, 인성형성에 가정환경이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신연희, 2001). 청소년기 부모와 자녀와의 상호작용의 양이 이전에 비해 감소하기는 하지만 부모의 청소년에 대한 영향력이 그와 동일하게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은 청소년기 동안에도 계속적으로 청소년 개인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결과 역시 부모와 가족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은 청소년 개인 뿐 아니라 청소년이 속한 가족 전체의 복지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을 탐색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에 관심을 두고 있다. 첫째, 부모자녀관계특성과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관련성을 탐색한 연구를 들 수 있다(류경희, 2003; 백경숙, 권용신, 2004; 신나나, 도현심, 2000;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이진숙, 정혜정, 2004; 최지은, 신용주, 2003). 이 연구들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방식, 부모와 자녀의 의사소통방식, 부모자녀관계의 질 등 부모와 청소년 자녀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차이가 난다고 보고한다.

둘째, 가족구조 및 소득 등 가족배경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한부모가족이나 빈

곤가족청소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박연수, 2003; 박현선, 1998)과 가족구조와 빈곤이 자녀의 학교적응, 혹은 교육적 성취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규명한 연구들(구인회, 2003 ; 장상수, 2000)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 학교적응에 있어서 가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어떠한 가족관련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데 공헌해왔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부모자녀관계적 특성 혹은 가족배경 특성 등 가족관련요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간의 관계를 탐색하였기 때문에, 가족배경과 가족관계요인들 중 어떤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큰지, 각 요인들 간의 상대적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미흡하였다는 지적을 받는다(이정윤, 이경아, 2004).

특히 가족배경과 가족의 심리적 환경은 각각 개별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상호관련성을 맺으면서 복합적으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즉, 가족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족 배경 자체가 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가족관계의 영향과 맞물려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려해 볼만하다. 예를 들면 가족의 빈곤과 같은 경제적 상황은 가족간의 갈등과 관련되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부모가 부적절한 양육행위를 함으로써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양국선, 장성숙, 2001; Conger et al., 1992).

따라서 본 연구는 가족배경과 가족의 심리적 환경을 구분하여 각 요인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가족관련요인들의 상호관련성을 분석할 뿐 아니라, 어느 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밝히고자 한다.

또한 학교적응 개념이 단일개념이 아닌 여러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복합적 특성을 갖는다고 한다(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류경희, 2003). 예

를 들면 학교적응은 교사와의 관계, 학교규범준수, 학교분위기에 대한 태도, 학업성적 등 여러 하위영역들로 구성된 다영역적 개념으로 파악된다(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이처럼 각 하위영역들이 서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각각에 미치는 관련 요인들도 상이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적응을 파악하는데 있어 각각의 개별적 적응 영역별로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변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개념을 다영역적인 것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즉, 학교생활태도, 성적, 학교 만족도 등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 대하여 가족관련 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이 때 가족관련요인은 경제상태, 부모의 학력, 부모직업 등 가족배경특성과 가족갈등, 부모와의 의사소통 및 부모관심도 등 가족관계적 요인을 모두 포함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전반적 학교적응실태를 파악해 본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배경과 가족관계요인이 각각 독립적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가족배경을 통제된 상태에서 가족관계요인의 영향이 지속되는지 살펴본다. 셋째, 학교생활태도, 성적, 학교 만족도 등 학교적응의 각 하위영역별로 가족관련변인(가족배경특성, 가족관계특성)들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청소년의 학교적응

학교는 청소년들이 학업성취를 잘 하고 또래와 잘 어울리며, 학교생활에서 긍정적 행동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유능성을 성취하기 위한 유용한 장이다(양국선, 장선숙, 2001). 다시 말해서, 학교적응은 청소년기에 습득해야 하는 중요한 발달과제이며,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청소년기 이후 직업적 성취 및 성인기로의 전환기의 성공적 적응을 예측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학교적응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학교적응은 “학교의 규범과 질서를 준수하고 수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으며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하여 적절하고 조화로운 학교생활을 하며, 자기 자신도 학교생활에 만족하는 것”(이정윤, 이경아, 2004)으로 알려져 있다. 학생이 학교와 조화를 이루고 만족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학업을 포함한 학교생활 전반에 잘 적응해가는 것을 학교적응이라고 하겠다(정규석, 2004).

앞서 언급하였듯이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적응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두 가지 경향을 보인다(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첫째는 단일개념으로 학교적응을 파악하는 연구들이다. 즉, 학교적응을 학업성취 혹은 교육 성취로써 측정하거나(구인회, 2003; 장상수, 2000; Dombusch et al., 1987; Reynolds & Gill, 1994) 학교적응척도를 사용하여 학교생활의 여러 영역의 점수들을 합산하여 측정한 연구들을 들 수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학교적응관련 연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처럼 단일개념으로 학교적응을 측정한 연구들은 적응을 잘 하는 집단이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집단과 비교하여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즉 이 두 집단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탐색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시

한다.

둘째, 학교적응을 다영역적 개념으로 파악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들은 학교적응척도로 측정되는 교사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 학교규범에의 준수, 학교분위기에 대한 태도, 학업 성적 등의 여러 하위영역을 각각 종속변수로 하여, 이러한 하위영역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거나, 학교적응척도와 성적을 종속변수로 하여 각각의 영역별로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한 연구들이다(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류경희, 2003 ;정규석, 2004; Astone & McLanahan, 1991; Dubois & Felner, 1994; Paulson, 1996).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의 양상이 각 하위 영역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역시 다양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류경희, 2003), 이러한 다영역적 접근은 청소년의 학교적응실태를 보다 세분화하여 심층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서 유용성을 갖는다.

본 연구는 후자의 입장을 택할 것이다. 즉, 학교적응의 영역을 대표하는 하위요인으로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영역으로서의 성적, 학교만족도 등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의 분포는 전반적으로 어떠한가, 개별 영역별로 학교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탐색하고자 한다.

학교생활태도는 다양한 학교생활영역들에 대해 학생들이 얼마나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측정한 것으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학교적응척도를 통해 파악한다.

성적 등 학업성취 역시 학생들의 적응을 측정할 수 있는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된다(김영희, 2001; 이경아, 정현희, 1999; 이옥주, 2004). 성공적 학업성취와 관련된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가족과 사회적 주요 관심사일 뿐 아니라 교육학의 학문적 영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로 언급되어 왔다(이옥주, 2004). 특히 높은 학업성취는 높은 교육성취와 연결되어 청소년 자신의 성인기 사회경제적 지위와 복리수준을 결정하는 대표적 요인으로

언급된다(Haveman & Wolfe, 1994). 따라서 본 연구는 학업성취를 나타내는 학업성적 변수를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대표하는 하나의 변인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학교적응을 측정하는 또 하나의 하위영역으로 추가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즉 학교생활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이것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한편 청소년의 성별, 연령, 종교 유무 등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따라 학교적응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보고 된다(구자은, 2000;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 2004; 정유진, 1999; 최지은, 신용주, 2003). 많은 연구들이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학교생활에 더욱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을 만족스럽게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운재, 2002; 유윤희, 1994). 또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학교에 더욱 잘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사운재, 2002; 주현정, 1998, 최지은, 신용주, 2003).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요인인 성별과 연령, 종교유무를 통제변인으로써 분석에 사용하고자 한다.

2. 학교적응과 관련된 가족요인

1) 가족배경요인

학교적응관련 선행연구들은 가족구조나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같은 가족배경요인과 학교적응간의 관련성을 많이 언급해 왔다. 즉, 빈곤이나 경제적 불안정, 결손가족형태는 청소년 자녀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들의 학교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박현선, 1998; McLoyd, 1990).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형태의 측면에서 볼 때 한부모 가구의 자녀보다 양부모가구의 자녀들이 사회적, 정서적, 인지적 발달이 더 유리한 것으로 보고 된다(McLanahan, 1997). 따라서 부모 모두가 생존하는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강선, 1999; 이재철, 1994; 최지은, 신용주).

구인회(2003)는 가족구조가 부모의 양육자원과 양육행위를 변화시킴으로써 아동의 교육성취와 같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예를 들면, 한부모 가족의 경우 부모가 자녀에 대한 양육부담을 공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가중되므로 적절하지 못한 양육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가족 내 갈등수준도 높다(박현선, 2003). 또한 가족해체로 인한 구조적 결손가정과 빈곤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김영모 외, 1982, 박현선, 1998), 이러한 가족소득의 하락이 자녀의 학력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가져올 수도 있다(구인회, 2003).

둘째, 가족의 경제적 수준은 청소년의 교육성취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된다(구인회, 2003; 박현선, 1998).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빈곤가족의 부모는 자녀의 교육 관련 비용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자녀는 학업에 전념하기보다 가계보조자로서 경제적 활동에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청소년자녀의 학력수준이 저하될 수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위로 이어짐으로써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역기능을 초래하며, 청소년 자녀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양국선, 장성숙, 2001; Conger, Conger & et al., 1992).

셋째, 부모 직업과 학력 등 가족의 지위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김지현, 1996; 김용희, 1989; 이정순, 1996; 최지은, 신용주, 2003). 즉, 부모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교육수준이 높은 가족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학습관련 측면에서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정리하면, 가족구조, 가족의 경제상황, 부모학력 등 가족의 배경 요인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2) 가족관계 요인

청소년기가 되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래집단의 영향력이 커진다고 하지만,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여전히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가족 내에서의 상호작용의 질은 청소년의 성공적 학교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Rice,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 역, 2001: 280). 이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와의 자녀의 의사소통 방식과 빈도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숙, 1999; 배나현, 2003; 서명성, 1999; 이연숙, 1999). 이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와 긍정적이고 우호적이며 적극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학교적응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고한다. 또한 의사소통 방식 뿐 아니라, 의사소통 빈도 및 대화시간 역시 학교적응과 유의미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즉, 부모와 의사소통 빈도가 높고 대화시간이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숙, 1999; 서명성, 1999). 특히,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고 된다(이진숙, 2002).

둘째, 부모가 자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우 청소년 자녀는 학교생활에 긍정적 적응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모로부터 따뜻한 관심과 보살핌은 청소년 자녀의 높은 자아존중감과 학업적 성공, 적절한 도덕적 발달과 관계가 있다고 한다(Rice, 정영숙, 신민섭, 설인자 역, 2001: 232). 반면, 부모로부터 거부당한다고 느끼거나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대

적 태도는 청소년의 낮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친다(류경희, 2003).

셋째, 가족 내 불화와 갈등수준은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부적응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류경희, 2003). 가족 불화가 만연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은 심리적으로 불안과 긴장수준이 높기 때문에 부적응행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노길미, 1999). 따라서 가족의 갈등과 불안 수준이 높은 가족의 학생은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된다(이현주, 1999).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관련요인을 가족배경 특성과 가족관계 요인 모두를 포함시켜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되는 가족배경특성에는 가족의 경제상황, 부모학력, 아버지 직업 등이 포함되며, 가족관계요인은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관심도, 가족갈등 등이 포함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가족배경과 가족관계의 상호관련성을 탐색하기 위해 각 가족배경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관계의 요인의 영향이 지속되는지, 혹은 가족관계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가족배경요인의 영향이 지속되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가족배경과 가족관계요인이 각각 독립적으로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면 과연 어느 요인이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해 볼 것이다.

또한 학교적응을 상호 구분되는 하위영역들로 나누어, 각 개별적 영역에서의 가족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양상이 개별적 하위영역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각 영역은 서로 구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각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들이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 예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Ⅲ.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2004년 9월에 서울 소재 3개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이다. 총 30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280부를 회수하였으며, 이 중 응답이 부실한 9부를 제외한 271부를 최종적으로 분석에 이용하였다. 설문지에 응답한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특성

변수		빈도(%)	계
성별	남	114(41.9)	270
	여	156(57.4)	
학급	중학교	185(68.3)	271
	고등학교	86(31.8)	
종교	있다	190(70.1)	271
	없다	81(29.9)	
학교성적	상	50(18.5)	271
	중	168(62.0)	
	하	53(19.5)	
경제수준	상	41(15.1)	271
	중	209(76.8)	
	하	21(7.7)	
가족형태	양부모	254(93.7)	271
	한부모	17(6.3)	
아버지학력	중졸이하	24(8.9)	271
	고졸	91(33.6)	
	대졸	115(42.4)	
	대학원졸	40(14.8)	
어머니학력	중졸이하	24(8.9)	271
	고졸	116(42.8)	
	대졸	107(39.5)	
	대학원졸	23(8.5)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는 학교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학교생활태도, 성적, 전반적 학교만족도 등 세 가지 영역을 측정하였다.

학교생활태도척도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의 여러 측면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측정한 것이다. 이것은 학교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질문지에서 필요한 문항들을 선택한 후, 문항 간 신뢰도 검사와 요인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학교생활태도척도를 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응답범위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요인분석에 사용된 문항은 12문항이었으며, 이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Cronbach 알파계수는 0.80이었다. Varimax 회전방식을 이용한 요인분석결과, 세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I은 ‘선생님·학교관련태도’, 요인 II는 ‘학습관련태도’, 요인 III은 ‘또래관련태도’라고 명명하였으며, 이 세 가지 요인은 학교생활태도를 나타내는 하위영역으로 각각 종속변수로써 분석에 사용되었다.

성적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를 측정한 학교적응영역이다. 이것은 학생들의 주관적 평가로써 측정하였다. “본인의 학업성적은 어느 정도인가?”의 물음에 대하여 ‘상’, ‘중’, ‘하’로써 응답하였다.

학교생활만족도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재 학교생활에 대해 만족하십니까?”라는 단일문항으로써 측정하였다.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선행연구들을 통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가족배경 변수, 가족관계 변수 및 통제변수들을 중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

가족배경변수는 경제상황과 아버지학력, 아버지 직업이 포함되었다. 경제상황은 학생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한 가족의 경제적 상황으로 ‘하’, ‘중’, ‘상’의 응답범위를 갖는다. 아버지 학력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대학원졸’의 응답범위를 가지며 연속변수로서 회귀분석에 사용되었다. 아버지 직업은 관리직·사무직·전문직을 1로, 단순노무직·서비스직 및 기타직종을 0으로 부호화 하여 분석하였다.

가족관계변수는 부모관심도와 아버지와의 대화시간, 가족갈등이 포함되었다. 부모관심도는 “부모가 나의 생활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묻는 단일문항으로 질문하였으며, 응답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의 경우, ‘한달에 한 번 정도’, ‘2-3주에 한 번 정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2-3일에 한 번 정도’, ‘매일’의 다섯 가지 응답범주를 갖는데 이것을 연속변수화하여 분석에 포함시켰다.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와의 대화가 많은 것이다. 가족갈등은 가족 내의 경제적, 자녀양육관련, 건강, 친지, 성격, 사회활동관련 갈등정도를 묻는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로서 측정하였다. 이 문항들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78$ 로 나타났다.

통제변수로는 학생의 성별과 나이, 종교여부를 사용하였다. 성별은 남학생을 1, 여성을 0으로 부호화 하였으며, 종교여부는 종교가 있으면 1, 없으면 0으로 부호화 하여 회귀식에 사용하였다.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학생들의 학교적응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각 종속변수들의 빈도 및 평균을 구하였다. 둘째, 조사대상 학생들의 가족관련요인들이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가족배경이 학교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관계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가족배경변수(경제상황, 부 학력, 부 직업)만을 회귀모형에 포함시킨 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마찬가지로 가족관계가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족배경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가족관계변수(부모관심, 아버지와 대화, 가족갈등)만을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셋째, 가족배경과 가족관계요인을 한꺼번에 투입하여 다른 요인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각각의 가족관련요인들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이 지속되는지, 회귀계수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 학교적응의 전반적 경향

조사대상자의 학교적응실태의 전반적 경향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2>, <표 3>과 같다.

조사대상 청소년들의 전체 학교생활태도의 평균은 3.02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했을 때, 응답자 평균이 척도 상 ‘보통이다’와 ‘조금 그렇다’의 사이에 위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보통 정도의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적응양상을 학교생활태도의 하위영역별로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선생님·학교관련태도’가 가장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또래 관련 태도’의 경우 평균이 3.73으로,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다른 영역에

비해 이 영역에 대해서 가장 긍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의 측정 역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를 1점, ‘매우 만족한다’를 5점으로 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평균은 2.83으로 나타났다. 이 값은 척도상의 ‘별로 만족하지 않는다’와 ‘보통이다’ 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대상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대해 별로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성적의 경우, 응답자의 대부분의 학생들의 성적이 중위권이었으며 (62.0%),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들은 각각 전체의 19.6%, 18.5%를 차지하고 있었다.

<표 2> 학교생활태도 및 학교만족도 경향

변인		평균(범위: 1-5)	표준편차
학교생활태도	선생님·학교관련태도	2.82	.76
	학습관련태도	2.98	.75
	또래관련태도	3.73	.89
전반적 학교생활태도		3.02	.59
학교생활만족도		2.83	.97

<표 3> 성적의 전반적 경향

변인		빈도(%)
성적	상	53(19.6)
	중	168(62.0)
	하	50(18.5)
계		271(100)

2.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는 다음의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듯이,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관련 변수들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	1.00	-.006	.207**	.125*	-.089	-.244**	.086	-.050	-.052
2	-.006	1.00	-.071	.016	-.005	.043	.062	-.091	.042
3	.207**	-.071	1.00	.159**	.051	-.181**	.087	-.104	.167**
4	.125*	.016	.159**	1.00	-.063	-.091	-.021	-.042	.065
5	-.089	-.005	.051	-.063	1.00	-.050	.042	.023	.069
6	-.244**	.043	-.181**	-.091	-.050	1.00	.008	-.026	.036
7	.086	.062	.087	-.021	.042	.008	1.00	-.130*	-.063
8	-.050	-.091	-.104	-.042	.023	-.026	-.130*	1.00	-.037
9	-.052	.041	.167**	.065	.069	.036	-.063	-.037	1.00

1.경제상태 2.부 학력 3.부 직업 4.부모 관심 5.부 대화 6.가족갈등 7.성별
8.연령 9.종교

1) 학교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

학교생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표 5>를 보면 학교생활태도 영역 중 ‘선생님·학교관련 태도’에 있어서 가족배경요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가족관계요인 중 부모관심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을 각각 모형에 투입한 모델 1과 모델 2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부모관심 요인만이 청소년의 ‘선생님·학교관련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러한 결과는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구조요인을 모두 투입한 모델 3에서도 마찬가지이었다. 따라서 부모가 높은 관심을 보이는 청소년일수록 ‘선생님·학교관련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통제변수로 분석모델에 포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연령과 종교유무가 청소년의 ‘선생님·학교관련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선생님·학교관련태도’에 좀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청소년의 ‘선생님·학교관련태도’에 대한 가족관련요인의 영향

요인		모델 1 (β)	모델 2 (β)	모델 3 (β)
가족배경	경제상태	.096		.103
	부 학력	.039		.033
	부 직업	-.045		-.072
가족관계	부모관심		.192**	.184**
	부 대화		-.065	.109
	가족갈등		.038	.043
통제변수	성별	.031	.039	.028
	연령	-.196**	-.192**	-.200**
	종교	.187**	.158**	.172**
Adj, R ²		.066	.095	.132
F값		4.140***	5.697***	4.378***

부 직업: 관리직·전문직·사무직=1, 단순노무직·서비스직 및 기타=0

성별: 남=1, 여=0

종교: 종교 있음=1, 종교 없음=0

*p<.05 **p<.01 ***p<.001

둘째, 청소년의 ‘학습관련태도’에 대하여 가족관련요인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을 보면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을 각각 모형에 투입한 모델 1과 모델 2의 회귀분석 결과, 가족배경요인 중에서는 경제상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가족관계요인 중에서는 부모관심과 가족갈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가족의 경제상태가 높고 부모가 자녀에

게 많은 관심을 보일수록, 반면 가족갈등은 적을수록 청소년의 ‘학습관련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을 모두 회귀식에 포함시킨 모델 3의 결과는 주목할 만 하다. 모델 3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가족배경과 가족관계가 모두 포함된다 하더라도 경제상태와 부모관심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가족갈등의 효과는 상실되었다. 반면, 가족배경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모델 2) 아버지와 대화시간은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것과 달리, 모델 3에서 오히려 경제상황을 통제한 후 학교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가족갈등이 청소년의 학습관련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상황을 통제할 경우 지속되지 않았으나, 반대로 아버지와 대화의 경우 경제상황이 함께 고려되었을 때 학습관련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마지막으로 가족배경요인인 경제상태와 가족관계요인인 부모관심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를 살펴보기 위해 모델 3에서 각각의 회귀계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부모관심정도가 청소년의 ‘학습관련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학습태도관련’ 영역의 경우 가족관련요인들 중 가족관계요인,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경제상황을 통제하였을 때 가족갈등요인의 효과가 상실한 결과를 감안한다면, 학습관련태도 영역에서 경제상황이 가족갈등의 영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 역시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통제변수로 분석모델에 포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에서는 종교유무가 청소년의 ‘학습관련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학습관련태도’에 좀 더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6> 청소년의 '학습관련 태도'에 대한 가족관련요인의 영향

요인		모델 1 (β)	모델 2 (β)	모델 3 (β)
가족배경	경제상태	.290***		.257***
	부 학력	.009		.003
	부 직업	.040		-.421
가족관계	부모관심		.342***	.312***
	부 대화		.065	.120*
	가족갈등		-.146*	-.091
통제변수	성별	.036	.068	.043
	연령	.096	.088	.089
	종교	.131*	.103	.117*
Adj, R ²		.092	.153	.206
F값		5.522***	9.130**	8.738***

부 직업: 관리직·전문직·사무직=1, 단순노무직·서비스직 및 기타=0

성별: 남=1, 여=0

종교: 종교 있음=1, 종교 없음=0

*p<.05 **p<.01 ***p<.001

셋째, 학교생활태도 영역 중 '또래관련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이 어떠한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을 각각 모형에 투입한 모델 1과 모델 2의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가족배경요인은 청소년의 '또래관련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배경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관계요인의 효과를 살펴본 모델 2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부모관심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또래관련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을 모두 회귀식에 포함시킨 모델 3의 결과에 따르면, 부모관심 요인은 여전히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국, 청소년이 긍정적인 또래관련태도를 갖는데 있어서 부모가 얼마나 많이 자녀에게 관심을 보이는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통제변수로 분석모델에 포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은 청소년의

‘또래관련태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청소년의 또래관련 태도에 대한 가족관련요인의 영향

요인		모델 1 (β)	모델 2 (β)	모델 3 (β)
가족배경	경제상태	.107		.077
	부 학력	-.006		-.008
	부 직업	.078		.048
가족관계	부모관심		.175**	.161**
	부 대화		-.016	-.007
	가족갈등		-.088	-.061
통제변수	성별	-.101	-.081	-.091
	연령	.011	.007	.013
	종교	.089	.089	.084
Adj. R ²		.016	.038	.035
F값		1.748	2.745**	2.091*

부 직업: 관리직·전문직·사무직=1, 단순노무직·서비스직 및 기타=0

성별: 남=1, 여=0

종교: 종교 있음=1, 종교 없음=0

*p<.05 **p<.01 ***p<.001

2)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

청소년의 학교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피기 위하여 다음의 <표 8>과 같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관계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배경요인으로 경제상태와 아버지의 직업이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델 1). 마찬가지로 가족배경요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족갈등정도도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델 2). 즉, 가족의 경제상태가 높고, 아버지의 직업이 전문직·관리직·사무직 중 하나이며, 가족 내 갈등이 적을수록 청소년의 학업성적은 더욱 좋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학교성적에 대한 경제상태와 아버지 직업, 그리고 가족갈등의 영향력이 각각을 서로 통제시킨 상황에서도 지속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을 모두 회귀식에 포함시켜 분석해 보았다 (모델 3). 그 결과, 경제상태와 가족갈등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남아있었으나, 아버지 직업의 효과는 사라졌다. 이것은 가족관계요인이 아버지 직업의 효과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가족배경요인인 경제상태와 가족관계요인인 가족갈등 중 어떤 요인이 청소년의 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이를 위해서 모델 3에서 경제상태와 가족갈등의 회귀계수크기를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가족의 경제상태가 가족갈등정도에 비해 학교성적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업성취에는 가족배경으로서 경제상태가 가장 중요한 영향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통제변수로 분석모델에 포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은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8> 성적에 대한 가족관련요인의 영향

요인		모델 1 (β)	모델 2 (β)	모델 3 (β)
가족배경	경제상태	.219***		.186**
	부 학력	-.078		-.076
	부 직업	.134*		.103
가족관계	부모관심		.097	.062
	부 대화		-.058	.019
	가족갈등		-.203**	-.138*
통제변수	성별	-.023	.002	-.017
	연령	.039	.027	.032
	종교	-.016	-.006	-.012
Adj. R ²		.064	.036	.077
F값		4.069**	2.700*	3.478***

부 직업: 관리직·전문직·사무직=1, 단순노무직·서비스직 및 기타=0

성별: 남=1, 여=0

종교: 종교 있음=1, 종교 없음=0

*p<.05 **p<.01 ***p<.001

3) 학교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

청소년의 전반적인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표 9>에 제시하였다.

가족관계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가족배경요인만을 회귀모형에 투입한 결과(모델 1) 가족배경요인은 학교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가족배경요인을 통제하지 않고 가족관계요인만을 회귀모형에 투입한 모델 2의 경우, 부모관심과 가족갈등요인 모두 청소년의 학교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높을수록, 가족 내 갈등이 적을수록 청소년들은 학교생활에 더욱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을 모두 분석에 투입한 모델 3의 결과, 여전히 가족배경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부모관심과 가족갈등의 영향력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배경요인이 통제된 상태에서도 가족관계의 영향력은 독립적으로 남아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학교만족도 영역에서는 가족관계요인이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의 효과는 가족배경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작용하였다.

부모관심과 가족갈등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모델 3에서 부모관심요인과 가족갈등요인의 회귀계수를 비교한 결과, 부모관심의 회귀계수가 가족갈등의 회귀계수보다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청소년의 학교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가 자녀에게 보이는 관심이라고 하겠다.

이 밖에도 통제변수로 분석모델에 포함된 사회·인구학적 요인들의 청소년 학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우, 연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즉, 연령이 낮을수록 학교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학교만족도에 대한 가족관련요인의 영향

요인		모델 1 (β)	모델 2 (β)	모델 3 (β)
가족배경	경제상태	.005		-.043
	부 학력	.063		.061
	부 직업	-.003		-.066
가족관계	부모관심		.212***	.217***
	부 대화		-.005	.082
	가족갈등		-.152*	-.178**
통제변수	성별	-.015	-.012	-.006
	연령	-.143*	-.141*	-.153*
	종교	-.010	-.020	-.013
Adj, R ²		.003	.074	.081
F값		1.150	4.609**	3.636***

부 직업: 관리직 · 전문직 · 사무직=1, 단순노무직 · 서비스직 및 기타=0

성별: 남=1, 여=0

종교: 종교 있음=1, 종교 없음=0

*p<.05 **p<.01 ***p<.001

V. 맺는말

본 연구는 청소년기 학교적응에 있어서 가족관련요인의 중요성을 견지하고 가족관련요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분석하고자 한 것이다. 이 때 학교적응은 다영역적 개념으로서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태도, 학업성취, 학교만족도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그다지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생활태도를 보면, 각 하위 영역별로

학생들의 태도양상이 각각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학교생활영역으로 ‘선생님·학교 영역’, ‘학습영역’, ‘또래관계영역’ 중에서 ‘선생님·학교영역’을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였으며, ‘또래관계영역’을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였다.

둘째, 학교적응을 학교생활태도, 성적, 학교만족도 등의 세 가지 하위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각 하위 영역별로 가족관련요인의 효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생활태도의 경우, ‘선생님·학교관련태도’영역에서는 부모관심요인이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즉, 부모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선생님과 학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관련태도’의 경우 가족배경요인인 경제상태와 가족관계요인인 부모관심, 아버지와의 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로 밝혀졌다. 경제상태가 좋고 부모관심을 많이 받으며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하는 학생이 학습활동에 자신감과 만족감을 보이는 것을 시사한다. ‘또래관련태도’의 경우, 부모관심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업성취의 경우, 경제상태와 가족갈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상태가 좋고 가족들의 갈등수준이 낮은 학생들의 성적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더 좋음을 알 수 있었다.

학교만족도의 경우, 가족관계요인으로서 부모관심과 가족갈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배경요인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부모로부터 관심을 많이 받고 가족 갈등이 적은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청소년 학교적응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가족배경요인보다 가족관계요인의 효과가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여 진다. 가족배경과 가족관계요인의 영향을 각각 분석한 결과, 경제상태와 부모관심변수는 대부분의 학교적응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러나 경제상태의 영향은 가족관계요인들을 통제 한 이후에는 모든 학교적응영역들에

서 일관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부모관심정도는 경제상태를 통제 한 이후에도 대부분의 학교적응영역에서 독립적으로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족배경요인과 가족관계요인의 회귀계수의 크기를 통해 이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가족관계요인인 부모관심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가족관계요인 중 부모관심요인은 가족배경을 통제한다 하더라도 학교적응에 대한 유의미한 영향력을 상실하지 않았으나, 아버지와의 대화 및 가족갈등 요인의 영향력은 가족배경의 효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섯째, 가족배경요인으로서 경제상태의 효과 역시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학업성취영역에 있어서 경제상태의 영향력이 두드러졌으며, 그 밖에도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학습관련태도’에 있어서 가족관계요인인 가족갈등 및 아버지와의 대화의 효과를 중재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섯째,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중 종교유무가 학교적응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 거의 모든 학교적응영역에서 종교를 가진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긍정적인 적응을 하고 있었다. 종교적 신념은 개인이 역경에 직면할 때 평안과 더불어 도전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줌으로써 개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공적 적응을 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져 왔다 (Walsh, 양옥경, 김미옥, 최명민 역, 2002: 128-129). 본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맥락에서 종교가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높이는 역할을 한 것이 아닌지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촉진시키고 청소년 자녀를 둔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적응의 각 영역별로 적응의 양상 및 관련 요인의 영향력이 상이해짐을 보여준다. 이것은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이해하고 이들의 적응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학교적응을 구성하는 여러 하

위 영역들을 세분화 하여 자료를 모으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둘째, 본 연구 결과 부모관심, 가족갈등, 부모와의 의사소통 등 가족관계의 질을 대표하는 변수들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의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며, 경우에 따라서 가족배경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 중에서 부모관심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많은 선행연구들이 가족 배경보다 청소년 자녀의 긍정적인 학교적응을 위해 가족 안에서의 부모의 역할 및 양육행동, 부모자녀관계의 질이 중요한 요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 청소년들은 부모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자녀와 충분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필요할 때 기꺼이 자녀를 돕고 지원할 때 부모가 자신을 진정으로 돌보고 있음을 느낀다고 한다(Rice 저, 정영숙 외 역, 2001: 243-280). 본 연구 결과는 부모의 지지에 대한 자녀들의 지각은 청소년기에도 여전히 중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며, 이러한 가족관계적 요인은 가족배경의 영향을 매개하는 요인으로서 더욱 중요성을 갖는다 하겠다.

특히 자녀가 청소년기에 이르면 부모와 자녀 모두 상호 애정적이고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쉽다. 청소년기가 되면서 부모와 자녀간의 대화의 빈도가 급감하며, 자녀 뿐 아니라 부모 역시 중년기에 들면서 신체적·심리적 변화로 인해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면서 부모자녀관계는 질적인 변화를 경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장휘숙, 2000: 280-281). 이 때문에,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부모 자녀관계의 질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원활한 학교적응을 촉진하기 위해서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도 자녀에 대한 애정적 관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적절한 교육 및 자녀양육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가족배경으로서 경제상태의 영향이 특히 학업성취에서 두드러졌다는 결과는 학교적응에 중요하게 나타난 결과는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이 사회적 차원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미 오랫동안 계층간 교육자원 및 성취의 불평등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논쟁으로 대두되어왔다(구인회, 2003). 그러나 이러한 계층간 교육 불평등의 문제가 입시제도 개선의 문제에 제한되었을 뿐 보다 심층적으로 어떠한 경로를 거쳐 가족의 경제적 자원이 학생들의 학업성취 및 교육성취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후속연구들을 통해 계층간 교육 불평등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체계적 논의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가 좀 더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보완하는 후속연구들이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변수들을 주로 주관적 평가에 기초하는 단일문항으로 측정하거나, 변수측정을 위한 척도의 수준이 다문항과 단일문항으로 혼재되어 있는 등 측정 상의 과학적 엄밀성이 떨어진다는 제한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된 각 변수들의 측정도구들을 보다 정교화 함으로써 측정상의 과학적 객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모두 같은 ‘청소년’으로서 분석되었지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가족관계 및 학교생활에 있어서 질적인 차이점이 있을 것이라 강하게 예상된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중학생과 고등학생 각각의 학교적응실태에 대해 비교·분석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정리하면,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체계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유용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이해를 돕고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에게 유용한 자녀 지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에 궁극적인 의의를 두었다.

참 고 문 헌

- 구인회(2003). 가족배경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가족구조와 가족소득, 빈곤의 영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제 22권, p. 5-32.
- 김광수(2003). 청소년의 분노수준, 분노대처방식과 학교생활적응. 교육심리연구, 제 17권 제 3호, pp. 393-410.
- 김영희(2002). 저소득층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어머니의 자녀교육 참여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 13권 제 1호, pp.1-14.
- 김용희(1989). 중학교 학교생활 부적응과정과 요인분석.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1996). 가정환경, 학교적응, 학업성취와의 관계분석.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1999).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촉진적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연구. 제주대 석사학위논문.
- 노길미(1999).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관계와 비행과의 관계.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류경희(2003). 청소년의 학교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관련 변인. 대한가정학회지, 제 41권 제 12호, pp.147-168.
- 민하영, 권기남(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제 25권 제 2호, pp. 81-92.
- 박연수(2003). 이혼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박현선(1998).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유연성 발달메커니즘, 청소년학연구, 제 5권 제 3호, pp. 147-165.
- 배나현(2003). 가족관계가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

대. 석사학위논문.

백경숙, 권용신(2004).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유형이 청소년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제 6권 제 2호, pp. 87-99.

사윤재(2002). 가족갈등으로 인한 결손가정 학생의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숭실대 석사학위논문.

서명성(1999).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학교적응과의 관계연구. 고려대 석사학위논문.

신나나, 도현심(2000). 청소년의 자아개념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와 학교생활 적응간의 상호작용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47권, pp.99-113.

양국선, 장성숙(2001).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연구: 야간 실업고등학교 근로청소년 대상. 한국심리학회지, 제 13권 제 3호, 127-148.

양순미, 유영주(2003). 자아존중감, 가족의 건강성, 사회인구학적 변인이 농촌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41권 9호, 121-134.

오재연, 최정혜, 김행자(2003). 가족의 심리적 환경이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 15권 4호, pp. 55-66.

유안진, 이점숙, 서주현(2004). 청소년의 부모양육행동지각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 9권 제 3호, pp. 161-180.

유윤희(1994). 학교적응 불안, 학업성취간의 관계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강선(1999).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기능과 학교생활 적응.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이연숙(1991). 가족체계 및 어머니-자녀 의사소통과 청소년 적응의 관계. 전북대 석사학위논문.

이옥주(2003). 성격특성과 스트레스 대처양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 17권 3호, pp. 77-85.

- 이정순(1996). 학생의 가정문화와 문화습성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 이정운, 이경아(2004).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 관련된 개인 및 가족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 16권 제 2호, pp. 261-276.
- 이진숙, 정혜정(2004).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2권 제 3호, pp.47-61.
- 이재철(1994). 결손가정과 정상가정 학생간의 학교적응도 및 개인신념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인하대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1999). 가정불안, 학교태도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상수(2000). 교육기회의 불평등: 가족배경이 학력 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 34권 제 3호, pp. 671-708.
- 장영숙, 신민섭, 설인자 역(2001). 청년심리학. 시그마플러스.
- 장휘숙(2000). 청년심리학. 학지사.
- 정규석(2004). 사회적 관계요인이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 56권, pp. 235-252.
- 정유진(1999). 청소년 학교생활 적응의 관련 변인.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 주현정(1985). 고등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최지은, 신용주(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 41권 2호, pp.199-210.
- 현희순, 김양순(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과 가정생활 및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제 20권 제 1호, pp. 249-262.
- Astone, N. M., & McLanahan, S. (1991). Family structure, parental practices and high school completion, *American Sociological*

- Review*, Vol. 56, pp. 309-320.
- Conger, R. D. et al.(1992).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Vol. 63, 526-541.
- Dombusch, S. M., et al.(1987). The relation of parenting style to adolescent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Vol. 58, pp. 1244-1257.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 parent-child relation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6, 405-414.
- Haveman, R. & Wolfe, B.(1994). *Succeeding Generations: on the effects of investments in children*. NY: Russel Sage Foundation.
- McLanahan, S.(1997). Parent absence or poverty: which matters more? In G. J. Duncan & J. Brooks-Gunn(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pp.35-48). NY: Russel Sage Foundation.
- McLoyd, V. C.(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Vol. 61, pp.311-346.
- Paulson, S. E.(1996). Maternal employment and adolescent achievement revisited. *Family Relations*, Vol. 45, pp. 201-208.
- Reynolds, A. & Gill, S. (1994). The role of parental perspectives in the school adjustment of inner city black children. *J. of Youth & Adolescence*, Vol. 23(6), pp. 671-694.

ABSTRACT

Family Related Factors' Influences on School Adjustment among Korean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Kang, Yoo-Jin^{*} · Moon, Jae-Woo^{**}

This study examined if family-related factors influence school adjustments of middle school and high school students. The data came from 271 students living in Seoul. We found that the degree to which the students successfully adjust themselves to their schools differed depending on school adjustment factors. We also found differential effects of family-related variables on their school adjustment behaviors. Of all the family-related variables the most important factor was family relationship, especially how much parents were interested in their children. A family background factor had the greatest influences on their school achievements and sometimes mediated the effects of family relationship factors on their school adjustm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we should provide the information necessary to encourage parental involvements and to reduce education gaps among students with different socioeconomic statuses.

Key Words : school adjustment, family background factors, family relationship factors

투고일 : 4월 30일, 심사일 : 6월 9일, 심사완료일 : 6월 22일

* Hansei University Fulltime Lecturer

** Hansei University Assistance Professor